

미래에 대한 예측 대 과거에 대한 이해: 변화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의 시간 틀 효과

박혜경 ·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변화라 할지라도 과거 지향 시간 틀에서 조망할 때와 미래 지향 시간 틀에서 조망할 때 그 변화 정도를 달리 지각할 것이며, 그에 따라 두 시간 틀에서 변화에 대해 경험하는 놀라움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시간에 걸친 가상 인물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1에서는, 사용된 성격 특질의 내용에 관계없이 과거 지향 시간 틀에서 변화 발생 확률이 낮게 평정되었다. 시간에 따른 외모 변화 지각에 대한 연구 2에서는, 과거 지향 시간 틀의 실험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표적 인물의 외모 변화 정도가 크다고 지각하였으며, 그에 따라 더 큰 놀라움을 경험하였다. 이 두 연구의 결과는, 질적인 변화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미래 지향 시간 틀에서보다 과거 지향 시간 틀에서 변화의 정도를 크게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가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나 친척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우리들의 첫 반응은 대개 그 친구나 친척의 모습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와 같이 변화에 대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사진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 때에도 역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곤 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들 중 우리는 어떤 경우에 대상 인물이 더 많이 변화하였다고 느끼는가? 즉, 과거에 알았던 사람을 현재에 다시 만났을 때와 현재에 알고 지내는 사람의 과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중 어떤 경우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각하는가? 본 논문의 목적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알아내는 데 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 A라는 사람의 초등학교 시절 사진과 대학교 시절의 사진이 각각

있을 때, 한 조건에서는 초등학교 시절 사진을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대학 시절의 사진을 제시한다(과거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접하게 하고 현재에 대한 정보를 나중에 제공하는 미래 지향 조건). 그리고 다른 조건에서는 이와 반대로 대학 시절의 사진을 먼저 제시하고 초등학교 시절의 사진을 나중에 제시한다(현재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과거에 대한 정보를 이후에 제공하는 과거 지향 조건). 이 두 조건은 사진을 접하게 되는 순서만 다를 뿐 그 외의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두 조건에서 일어난 변화는 객관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변화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틀에 따라 변화의 정도를 달리 지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미래 지향 조건에서보다 과거 지향 조건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각할 것이며, 따라서 이 조건에서 변화에 대하여

* 두 저자들은 이 논문에 동일하게 공헌하였으며 저자 제시 순서는 동전 던지기에 의해 결정되었다.

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렇다면 시간 틀에 의한 변화 지각의 비대칭성(asymmetrical perception of change)은 왜 생겨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change)와 안정성(stability)에 대한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변화와 안정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재구성적 기억(reconstructive memory)에 대한 Michael Ross의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의 자기와 과거의 자기가 일관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Buehler & Ross, 1993; McFarland, Ross, & DeCourville, 1989; McFarland, Ross, & Giltrow, 1992; Ross & Newby-Clark, 1998;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관은 Ross, 1989를 참조).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사(personal histories)를 회상할 때 과거를 있는 그대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재구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재구성의 과정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 혹은 안정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개입하여 과거의 자기를 현재의 자기와 일관되게 회상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안정성 이론(theories of stability)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선호(preferences), 신념(beliefs), 그리고 개인적 성향(personal dispositions)을 회상할 때 영향을 주게 되어, 자신이 과거에도 현재와 동일한 선호, 신념,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왜곡 회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걸친 일관성, 혹은 안정성만을 믿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이론(theories of change)은 결혼이나 치료 경험과 같은 사건들에 주로 적용되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건을 전후로 하여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도록 이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전보다 더 안정 지향적으로 변화한다는 암묵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나이든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보다 보수적이라고 가정하게 된다. 다른 예로, 심리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왜곡 회상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의 치료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느낀다(Conway & Ross, 1984). 이처럼 변화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사를 구성할 때에 자신이 이전의 어떤 시점에서는 현재와 아주 달랐다고 믿게 된다(Ross & Newby-Clark, 1998).

Ross(1989)에 의하면 변화, 혹은 안정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자신의 과거사뿐만 아니라 타인의 과거사를 재구성하거나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과 비교할 때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수가 학생 시절부터 학구적이고 진지하였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시대를 막론하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행동이 무례하고 혼란되어 있지 않음을 개탄하면서 자신들이 젊었을 때에는 예의 바르고 절제된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재구성적 기억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변화에 대하여 어떤 암묵적 이론을 가지고 있는가가 과거를 회상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동일한 속성의 변화라 할 지라도 시간의 틀에 따라서 그 변화를 지각하는 데에 적용되는 암묵적 이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의 모습을 지각하게 될 때에는 Ross가 지적한 것처럼 안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믿음이 강한 영향을 끼치는 반면,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될 경우에는 변화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리라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이론적 가설이다. 즉, 시간 틀이 과거 지향일 때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나, 반대로 시간 틀이 미래 지향일 때에는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동일한 변화에 직면하고서도 과거 지향의 시간 틀에서는 안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의 정도를 크게 지각하게 되지만, 미래 지향의 시간 틀에서는 변화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의 정도를 작게 지각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과거 지향의 시간 틀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상보다 많이 변화하였다는 지각으로 인해 놀라움을 크

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미래 지향의 시간 틀에서는 예상보다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지각으로 인해 놀라움을 약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 비대칭성

동일한 시점에서 일어난 변화라 할지라도 시간 틀에 따라 사람들이 적용하는 암묵적 이론이 다를 수 있다는 본 연구자들의 직관은 '과거 지각과 미래 예측은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라는 인지심리학자 Robin Dawes (1969, 1993)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Dawes(1993)는 사람들이 예측을 할 때(선행 요인으로부터 결과를 예상할 때)보다 회고적인 탐색을 할 경우에(결과를 알고 선행 요인을 찾을 때) 특정 결과와 특정 선행 요인 간의 통계적 수반성(statistical contingency)이 더 큰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결과의 원인을 찾는 회고 과정에서는 자연히 그 결과가 발생하는 데 억제적으로 작용했던 요인들보다는 그 결과를 발생시킬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원인들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 상태와 과거 상태가 (실제 이상으로) 밀접한 인과적 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선행 요인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요인들로부터 반드시 특정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데에 억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inhibiting causes)과, 해당 결과와는 다른 대안적인 결과들(alternative outcomes)까지도 고려하게 되어 특정한 선행 요인과 특정한 결과 간의 수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게 된다. Dawes(1993)는 회고 시와 예측 시의 상이한 수반성을 기본적 비대칭성(basic asymmetry)이라고 명명하였으며 통계적, 그리고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결과에서 선행 요인으로 가는 통계적 수반성이, 선행 요인으로부터 결과로 가는 수반성보다 체계적으로 클 수 밖에 없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Dawes(1993)의 논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회고 시에 후행 상태와 선행 상태 간의 수반성이 높을 것임을 기대하므로 선행 상태와 후행 상태 간에 일관성이 없는 일, 즉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덜 고려할 것이며, 따라

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때 이 변화에 대해서 더 큰 놀라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예측 시에는 본래 선행 상태와 후행 상태 간의 수반성이 낮을 것임을 기대하므로 선행 상태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비교적 그럴듯한 일로 지각될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 발생 확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할 것이며,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때 이 변화에 대해서 덜 놀라워 할 것이다.

사후과잉확신 편향(hindsight bias; Fischhoff, 1975, 1977; Fischhoff & Beyth, 1975; Hawkins & Hastie, 1990; Schkade & Kilbourne, 1991; Slovic & Fischhoff, 1977; Wasserman, Lempert, & Hastie, 1991)에 관한 연구들 역시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의 지각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예측에서 기본적으로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사후과잉확신 편향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마치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운동 경기의 결과를 알고 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생각하거나,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결과를 알게 된 후에는 그 후보가 당선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편향은 '현재의 사건들은 그 원인(들)이 과거에 분명히 존재하며 따라서 과거와 현재는 인과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으며 현재는 과거에 존재하는 요인들에 의한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일을 예측할 경우에는 이러한 인과적 연결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당선되고 난 후(결과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보다 낮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지각과 미래 예측 시에 나타나는 비대칭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귀인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귀인과 예언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귀인이 과거에 일어난 행동에 대해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예언은 주어진 조건들로부터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Heider(1958)에 따르면 귀인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예측이다. 어떤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 행동의 발생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런 논리적인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귀인은 쉬우나 예언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Nisbett과 Ross(1980)는 인간이 지닌 뛰어난 인지 능력 중 하나는 어떤 결과이든지 쉽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사후 설명들(ad hoc explanations)이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리 예외적인 행동이라도 사람들은 아주 그럴 듯하게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되며 과거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보여 주는 정도의 확신을 소유하기란 매우 어렵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전통들 모두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볼 때가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보다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게 가정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 시사점에 근거하여, 과연 동일한 변화라 할지라도 시간 틀에 따라 그 변화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 1

연구 1의 주된 목표는, 본 연구자들이 가정한 바와 같이 과연 사람들이 미래 지향의 시간 틀(과거 → 현재)에서보다 과거 지향의 시간 틀(현재 → 과거)에서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1에서는 특히 시간에 따른 성격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간 틀에 따라 다른 지각을 보이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근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Ross, 1977)나 소박한 성향론(nave dispositionism; Ross & Nisbett, 1991)에 대한 연구들이 밝혀 주듯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연구 1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물음을 쉽게 예를 들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25세인 현재 아주 약아빠진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10세 때에는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을 확률과 어떤 사람이 10세 때 아주 순진하였는데 25세 때 아주 약아빠진 사람이 되었을 확률 중 어느 것이 더 크겠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실험 참가자들에게 네 자극 인물의 특정 연령에서의 성격 특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즉, 과거 지향 조건에서는 25세 때의 성격 정보를, 그리고 미래 지향 조건에서는 10세 때의 성격 정보를 먼저 제시하였다. 그 후에 과거 지향의 조건에서는 동일한 표적 인물의 10세 때의 성격이 현재 제시된 성격과 반대일 확률을, 그리고 미래 지향의 조건에서는 25세 때의 성격이 과거의 성격과 반대일 확률을 추정하게 하였다. 연구자들의 가설은 과거 지향 시간 틀에서 추정한 변화 확률이 미래 지향 시간 틀에서 추정한 변화 확률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방 법

실험 참가자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 강의를 수강한 118명(남자 69명, 여자 49명)의 학생이 학점 이수의 조건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절 차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총 5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를 받았다. 실험의 목적을 숨기기 위하여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본 연구가 '조직 내에서의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과거 지향의 시간 틀'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25세 동갑내기 인턴 사원인 K, L, P, C(각각은 네 사람의 영문 이름 이니셜임)에게 실시한 성격검사 결과 현재 각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는 성격 특질들이 무엇으로 나타났는지를 알려주었다. 반대로 '미래 지향의 시간 틀'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이들의 10세 때의 성격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구체적으로 과거 지향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지시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모 그룹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 L, P, C라는 네 명의 사람이(모두 25세로 동갑임) 1년 동안 귀하의 회사에서 인턴사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면 계약이 만료되어, 당신의 판단에 의해 그들 중 한 사람만을 정사원으로 선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이 네 사람에게 실시한 성격 검사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의 조건에서는 이 부분이 다음의 문장들로 대체되었다; 귀하의 회사에서는 올해부터 신입사원 선발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아동기의 기록까지 평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K, L, P, C의 출신 초등학교에 요청하여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들이 10세였을 때의 생활기록부를 받아 보았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10세 때 이들에게 실시했던 성격검사의 결과가 담임 선생님들에 의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격 검사의 결과는 네 사람이 각각 특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성격 특질을 점수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었다. K는 순진함에서 97점, L은 둔감함에서 94점, P는 도덕성에서 96점, 그리고 C는 검소함에서 95점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기술되었다. 각 점수는 동년배 한국인들의 평균과 비교하여 해석하도록 지시되었는데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해당되는 성격 특질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점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해당되는 성격 특질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점수가 50 근처에 분포한다면 동년배 한국인들의 평균 정도인 것으로 해석하도록 지시하였다. 전술했듯 K, L, P, C는 모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성격 특질 상에서 90점 이상의 검사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제시하여,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 네 인물이 동년배에 비해 각각의 성격 특질을 극단적으로 보이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네 사람에 대한 성격 정보는 한 사람이 각각 한 가지 성격 특질을 보유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성격 특질 선택: 변화가능성 본 실험에서 사용된 네 개의 성격 특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선택되었다. 사람들은 어떤 성격 특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다른 성격 특질은 일단 형성되고 나면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다 (Rothbaum, 1983; Woodruff & Birren, 1972). 따라서 성격 특질 자체의 변화가능성과 시간 틀의 효과가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그 자체로서 변화하기 쉬운 성격 특질에 대해서는 과거 지향의 시간 틀이라 할지라도 변화의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시간 틀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변화가능성을 미리 측정하여 변화가능성이 높다고 지각되는 성격 특성들과 변화가능성이 낮다고 지각되는 성격 특성들을 구분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사전연구(N = 40)에서 서로 반대되는 성격 형용사 33쌍()을 양극으로 제시하고(예를 들어, 외향적인 - 내향적인) 왼쪽 극에서 오른쪽 극으로 변화할 가능성(‘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은?’)과 오른쪽 극에서 왼쪽 극으로 변화할 가능성(‘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은?’)을 각각 11점 척도(0 = 전혀 있을 수 없다, 10 = 매우 있을 법하다)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평정 자료에 근거하여 한 방향으로의 변화가능성은 높게 지각되고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가능성은 낮게 지각되며 두 변화가능성 지각 간의 차이가 큰 형용사 네 쌍을 최종 선택하였다(표1).

예를 들어, ‘약아빠진-순진한’의 경우 약아빠진 사람이 순진한 사람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게 지각되었으나(M = 2.45), 순진한 사람이 약아빠진 사람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M = 6.80) 지각되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38) = -7.21, p = .000$. 나머지 세 형용사 쌍들에 대해서도 한 방향의 변화가능성은 중간점(midpoint) 이상, 반대 방향의 변화가능성은 중간점 이하로 평정되었으며 두 방향의 변화가능성 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s < .001$.

표1. 연구1에서 사용된 성격차원들

약아빠진(shrewd)	→	순진한(naive)
	←	
예민한(sensitive)	→	둔감한(insensitive)
	←	
비도덕적인(unethical)	→	도덕적인(ethical)
	←	
사치스러운(extravagant)	→	검소한(frugal)
	←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변화’를 나타내며, 왼쪽 방향의 화살표(←)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변화’를 나타낸다.

1)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성격 형용사들은 Gidron, Koehler, & Tversky (1993), Rothbart & Park (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격 형용사들에 기초한 것이며 본 연구자들이 관련된다고 판단한 성격 형용사들을 목록에 추가하였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약아빠진 사람이 순진한 사람으로, 예민한 사람이 둔감한 사람으로, 비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사치스러운 사람이 검소한 사람으로 변하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는 (즉, 순진한 사람이 약아빠진 사람으로, 둔감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검소한 사람이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일) 상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어려운 변화(difficult change)’ 조건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방향으로의 성격 변화를 제시하였고 ‘쉬운 변화(easy change)’ 조건에서는 일어나기 쉬운 방향으로의 성격 변화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미래 지향 시점의 어려운 변화 조건의 경우, K가 10세 때는 아주 약아빠진 사람이었지만 25세 때는 아주 순진한 사람일 확률을 추정하게 하였다. 반대로 쉬운 변화의 조건에서는 K가 10세 때는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지만 25세 때는 아주 약아빠진 사람일 확률을 추정하게 하였다.

종속 측정치 실험 참가자들에게 우선 각각의 표적 인물들이 한 연령에서 보이고 있는 성격 특질(과거 지향에서는 25세, 미래 지향에서는 10세)을 근거로 그 인물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한 후 다른 연령에서(과거 지향에서는 10세, 미래 지향에서는 25세) 현재 보이고 있는 특질과 반대의 특질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을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추정하게 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이 이 물음에 답하고 난 후에는 실제로 그러한 차이가 있었다고 알려 주고(예를 들어, ‘10세 때 순진하였던 사람이 25세 때에는 아주 약아빠진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지를 11점 척도(0 = 전혀 놀랍지 않다, 10 = 매우 놀랍다) 상에 평정하게 하였다. 놀라움 평정치와 확률 추정치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결과 및 논의

연구 1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이 시간의 틀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달리 지각할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이 예측한대로 시간 틀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 113) = 6.60, p = .012$. 즉 동일한 성격 변화에 대해서도 그것을 미래 지향, 즉 과거-현재 시간 틀로 조망하였을 때보다($M = 34.04$) 과거 지향, 즉 현재-과거 시간 틀로 조망하였을 때($M = 27.65$), 상대적으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주효과는 성격 특질들의 변화가능성과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므로써($F < 1$), 변화 지각에 있어서의 시간 틀 효과가 성격 특질들의 변화 가능성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강력한 효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1이 보여 주듯이 성격 특질의 변화가능성이 낮은 조건이나 높은 조건 모두에서, 과거 지향 조건(현재-과거 시간 틀)의 실험 참가자들이 미래 지향 조건(과거-현재 시간 틀)의 실험 참가자들보다 변화가능성을 낮게 지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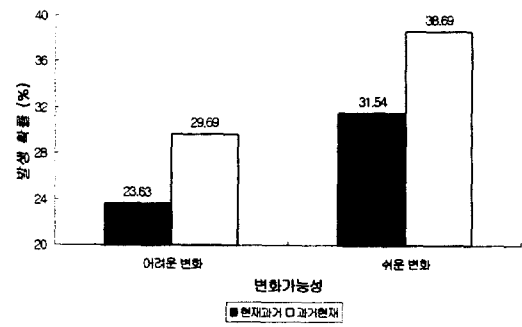


그림1. 발생 확률 추정

또한 이 패턴은 어느 성격 형용사 쌍을 사용하였는가의 여부와도 상호 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F(3, 339) = 1.23$. 따라서 시간 틀에 따른 변화가능성의 비대칭적 지각은 사용한 성격 형용사의 종류, 그리고 성격 특질들의 변화용이성 여부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강력한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확률 추정치와 놀라움 평정치 간에는 연구자들이 예상한 대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존재하였다, $r(117) = -.35, p = .000$. 그러나 놀라움 평정치에 대한 분석에서는 어느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F_s < 1$.

2) 질문지의 모든 문항에 답하지 않은 한 명의 실험 참가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1의 결과는 동일한 성격 변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미래 지향적으로 조망할 때와 과거 지향적으로 조망할 때 변화에 대한 지각이 달라짐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적 설명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렸을 때 순진했던 사람이 성장한 이후 약아빠진 사람으로 변한다거나, 어렸을 때 도덕적이었던 사람이 성장한 이후 비도덕적으로 변하는 것은 직관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이러한 변화는 그 기저율(base rate)이 높은 발달적 변화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안 공리(Bayesian theorem)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렸을 때의 성격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성장한 이후의 성격 정보를 나중에 제공하는 과거-현재 시간 틀로 이러한 변화를 제시하였을 때가 동일한 변화를 현재-과거 시간 틀로 제시하였을 때보다 당연히 그 발생 확률이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미래 지향 시간 틀에서 변화가능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지각에 편파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저율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건 확률을 계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기저율이 높은 변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저율이 낮은 변화(일어나기 어렵다고 지각되는 변화, 예컨대 어렸을 때 약아빠졌던 사람이 성장한 이후 순진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과거 시간 틀에서보다는 과거-현재 시간 틀에서 변화 발생 확률을 높게 지각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연구 1의 결과는 위의 대안 가설에 의해 설명되기가 어렵다.

연구 2

현재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랐을 확률을, 현재의 성격이 미래에 변화될 확률보다 낮게 추정하였다는 연구 1의 결과는, 사람들이 성격 변화에 대하여 시간의 틀에 따라 비대칭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연구 2는 이와 같은 시간 틀의 효과가 성격 특질의 변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얼굴 외모의 변화에도 적용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세

자극 인물의 과거 및 현재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과거 지향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현재 사진을 먼저 보여 준 후 과거 사진을 보여 주었으며, 미래 지향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과거 사진을 먼저 보여 준 후 현재 사진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1) 표적 인물의 인상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2) 일어난 인상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가 라는 두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자들의 가설은 미래 지향 조건에서보다 과거 지향 조건에서 표적 인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달라졌다고 지각할 것이며, 따라서 표적 인물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과거 지향 조건에서 더 놀라워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방 법

실험 참가자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37명(남자 24명, 여자 13명)의 학생이 학점 이수 조건으로 연구 2에 참여하였다.

절 차

실험 참가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실험용 컴퓨터가 놓여 있는 별도의 작은 방으로 안내하였다. 모든 지시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실험 참가자들도 키보드와 마우스만을 이용하여 질문들에 반응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본 실험이 사진을 보고 성격을 추측하는 연구라고 알려 주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K, P, L(각각은 사진 속 인물들의 영문 이름 이니셜임)이라는 세 인물의 과거, 그리고 현재 사진을 보고, 사진과 함께 제시되는 질문들에 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K의 현재 사진은 25세 때의 모습, 과거 사진은 10세 때의 모습이었으며, P의 경우는 22세와 7세, L의 경우는 60세와 35세 때의 모습이었다).

3) 실험에 사용된 총 여섯 장의 사진들은 모두 실제 인물의 사진이었다. K는 현재 25세인 남자이며, P는 현재 22세인 여자, L은 현재 60세인 남자이다. 얼굴 모습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 제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사진들은 사진 속 인물들의 실제 이름 대신 영문 이니셜과 함께 제시되었다.

시간 틀 조작 과거 지향 조건에서는 표적 인물 각각의 현재 사진을 먼저 제시한 후 과거 사진을 제시하였다. 반면 미래 지향 조건에서는 표적 인물들의 과거 사진을 먼저 제시한 후 현재 사진을 나중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과거 지향의 조건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 준다고 합니다. 얼굴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K라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K의 25세 때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속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K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시문을 모두 읽은 후 실험 참가자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K의 25세 때 사진이 제시되었다. 사진이 제시되기 시작한 후 2초가 지나면 사진과 함께 그 밑으로 K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인상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10개의 질문들이 제시되었다. 각각의 질문들은 K의 성격에 대하여 추측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으며(예: K는 순진한 사람일까, 아니면 약아빠진 사람일까?), 실험 참가자들은 각 문항들을 읽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K의 성격을 추측하여 11점 척도 상(예: 0 = 매우 순진한, 10 = 매우 약아빠진)의 해당되는 지점에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실험 참가자들이 10 문항의 질문들에 답하고 나면, 이어서 K의 10세 때 사진을 보여 줄 것이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보고 성격을 추측해 보라는 지시문이 모니터 상에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가 화면의 표시 부분을 누르면 K의 10세 때 사진이 제시되었다. 사진이 제시되기 시작한 후 2초가 경과하면 사진과 함께 사진 아래 부분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질문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25세 때와 비교해서 K의 10세 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K의 25세 때의 모습을 보고 나서 10세 때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반응은 모두 11점 척도(0 = 전혀 다르지 않다, 10 = 매우 다르다; 0 = 전혀 놀랐지 않다, 10 = 매우 놀랐다)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이 이 두 질문에 모두 반응하면 위의 절차가 P와 L에 대하여 반복되었다. 미래 지향 조건의 경우는 모든 절차가 동일하였으나 다만 제시되는 사진의 순서가 다를 뿐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이 세 명의 표적 인물에 대하여 모든 절차를 마치면 연구에 대해 사후 해명(debriefing)을 하는 것으로 실험은 종료되었다.

결과 및 논의

연구 2의 종속 측정치는 두 개로서 '두 시점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느냐'하는 것과 '두 개의 사진에서 나타난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질문에 대한 반응들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즉, 두 시점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지각할수록 더 큰 놀라움을 경험, $r(35) = .784$), 두 질문에 대한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을 평균하여 새로운 변화 지표를 만들고 먼저 이 변화 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2의 핵심 예언은 이 지표의 값이 미래 지향 조건에서보다 과거 지향 조건에서 더 클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실험 결과 이 예언은 지지되었다, $F(1, 33) = 3.45, p = .07$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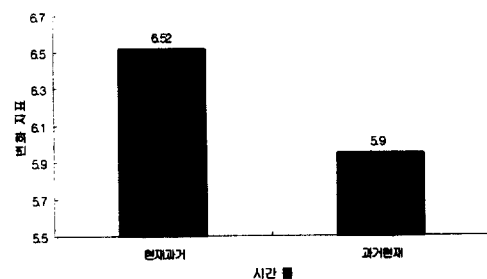


그림2. 두 시간 틀 상에서의 변화 지표

- 4) 실험 이전에 표적 인물들을 알고 있었던 두 명의 실험 참가자들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에 보고되는 모든 통계치들은 이 두 실험 참가자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들이다.

그림2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얼굴 모습의 동일한 변화에 대하여 미래 지향 조건(과거-현재 시간 틀)에서보다 과거 지향 조건(현재-과거 시간 틀)에서 더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지각하였다($M = 5.95$ vs. 6.52). 더욱이 시간 틀과 세 표적 인물들의 사진들과의 상호 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음으로써($F < 1$), 시간 틀의 효과가 자극 사진들에 구애받지 않고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실험에 사용된 사진들 중 K와 P의 사진들은 각각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의 연령 차이가 15세였으며, 과거와 현재의 사진은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L의 사진들은 현재와 과거의 시간차가 2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고, 과거 사진은 청년기의 모습, 현재 사진은 장년기의 모습이었다. 이처럼 사진들 간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진들과 시간 틀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음으로써 시간 틀의 효과가 특정 사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반응을 결합한 지표에 대해 분석한 이후, 개별 질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도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시점 간의 인상의 차이에 대한 지각에서 본 연구자들이 예상하였듯이 시간 틀의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F(1, 33) = 3.74, p = .06$. 즉, 실험 참가자들은 미래 지향 조건에서($M = 6.15$) 보다 과거 지향 조건에서($M = 6.71$) 상대적으로 자극 인물들의 얼굴이 두 시점 사이에서 많이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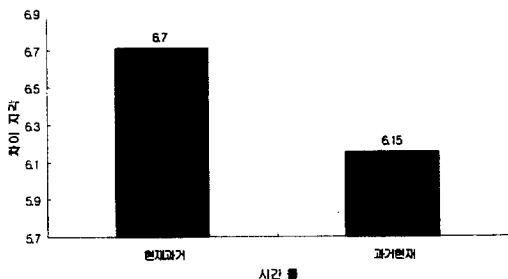


그림3. 두 시간 틀 상에서의 차이 지각

인상변화에 대한 놀라움 평정에 있어서도 차이 평정에서와 같은 방향의 시간 틀 효과가 나타났다, $F(1, 33)$

$= 2.55, p = .12$. 즉 차이 평정 결과와 일관되게, 미래 지향 조건에서($M = 5.76$) 보다 과거 지향 조건에서($M = 6.33$) 실험 참가자들이 더 큰 놀라움을 보고하였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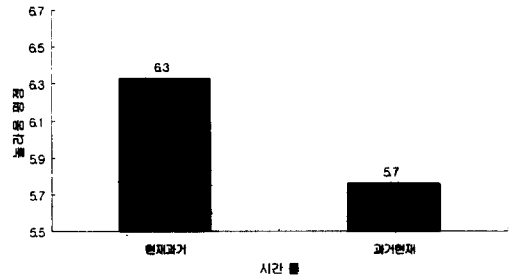


그림4. 두 시간 틀 상에서의 놀라움 평정

차이 평정치와 놀라움 평정치 모두에서 자극의 종류와 실험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_s < 1$.

연구 2는 시간 틀에 따른 변화 지각의 비대칭성이 성격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변화에도 적용됨을 보여 준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어릴 적 모습이 성인기에도 비슷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성인기의 모습이 어릴 적 모습에 비슷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예언을 유도한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옛 모습을 추측하여 그려 보게 한다면 그 그림은 현재의 얼굴과 아주 많이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미래의 얼굴을 그려 보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을 그리게 될 것이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과거 지향적으로 변화를 조망할 때와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를 조망할 때의 변화 지각이 다름을 보이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연구 1과 2의 결과는, 어떤 인물에게 일어난 변화의 내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래 지향적으로 조망할 때(과거-현재 시간 틀)보다는 과거 지향적으로 조망할 때(현재-과거 시간 틀) 그

변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각되며, 따라서 이 경우에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놀라움을 더 크게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낯선 사람의 변화에 대한 지각 대(對) 잘 아는 사람의 변화에 대한 지각

본 논문에 보고한 두 실험에서는 네 명의 가상 인물들의 성격 변화(연구 1), 혹은 실험 참가자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물들의 외모 변화(연구 2)를 자극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자극 대상에 대해 어떠한 사전 기억도 보유하고 있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따라서 실험 참가자들은 순수하게 과거와 현재(혹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변화에 대해 반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 지향일 때보다 미래 지향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틀의 효과가 판단자들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의 변화를 지각하는 데에서도 나타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즉, 어떤 사람이 A라는 인물을 현재 알고 있는데 실험에서 A의 현재 모습 및 과거 모습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자. 그는 A의 과거 모습은 처음 접했지만 현재 모습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알아 왔으므로 과거 모습보다는 현재 모습에 대해 보다 풍부하고 복잡한 표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에 대해 판단자가 가지고 있는 표상의 풍부성과 복잡성이 다르다면 본 실험의 결과를 유사성 판단 이론(Gati & Tversky, 1984; Tversky, 1977)에 의해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사성 판단 이론에 의하면 두 대상이 공통 특질들(common features)은 많이, 각 대상에 고유한 변별 특질들(distinctive features)은 적게 보유했을수록 둘 간의 유사성이 크게 지각된다고 한다. 이처럼 두 비교 대상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변별 특질들이 유사성 판단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로부터 유사성 판단 상에 비대칭성(asymmetrical similarity)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이란 a와 b라는 두 대상의 유사성이 비교 방향에 따라 달리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 즉, 'a가 b를 닮은 정도'는 'b가 a를 닮은 정도'와 항상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은 왜 나타나는가? 초점 가설(focusing hypothesis; Tversky, 1977)은 이에 대해,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참조항의 변별 특질보다는 주체의 변별 특질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라는 답을 제공한다('a는 b를 닮았다'고 말할 때 a는 비교 판단의 주체(subject)이며 b는 참조항(referent)이다). 즉,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더욱 비중있게 고려되는 요소는 참조항의 변별 특질이 아닌, 주체의 변별 특질인 것이다.

요컨대, 비교의 주체와 참조항에 대해 지각자가 가지고 있는 표상의 풍부성의 차이와, 유사성 판단 시 주체의 변별 특질과 참조항의 변별 특질이 차지하는 비중(weight)의 차이로 인해 비교의 방향이 바뀔 때 유사성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초상화를 닮은" 정도는 "초상화가 그 사람을 닮은" 정도와 같지 않다(Tversky, 1977).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순화된 그림인 초상화보다는 실제 인물 모습에 대해 풍부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초상화를 참조항으로 하여 실물이 초상화와 닮은 정도를 판단할 때('사람이 초상화를 닮았다')에는 비교 주체인 실물이 가진 변별 특질들이 부각되므로 실제 인물을 참조항으로 하여 주체인 초상화가 실물을 닮은 정도를 판단할 때('초상화가 사람을 닮았다')보다 둘 간의 유사성이 낮게 지각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사성 판단 이론에 의하면, 자극 인물의 현재 모습에 대해 풍부한 표상을 갖고 있는 판단자가, 과거 모습을 대부분 포괄하며 거기에 덧붙여 과거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특질들(즉, 현재 모습이 가지고 있는 변별 특질들)까지 갖춘 현재 모습을 먼저 보고 과거 모습을 나중에 접하는 현재-과거 시간 틀 조건('현재 모습이 과거 모습과 닮았다')에서 그 반대 조건('과거 모습이 현재 모습과 닮았다')에서보다 두 모습 간의 유사성이 낮다고 판단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 지식의 보유 여부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과거 지향 시와 미래 지향 시의 변화 지각의 차이가, 지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표상의 풍부성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변화를 조망하는 시간 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가상적인 성격 변화(연구 1)나 낯선 인물 사진(연구 2)을 자극 재료로 사용

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안적 설명의 가능성을 기각하였다.

미래 연구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간에 걸친 안정성, 혹은 변화에 대한 암묵적 신념이 미래 지향 시점에서와 과거 지향 시점에서 다르고, 따라서 두 시점에서 변화 정도를 지각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 가지 가능한 후속 연구는 안정성 이론, 혹은 변화 이론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측정하여 암묵적 신념의 차이가 변화 지각의 차이를 예언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 틀에서도 변화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과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동일한 변화에 대해서도 그 변화 정도를 지각하는 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 현재와 과거 간의 일관성에 대한 기대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일관성에 대한 상이한 기대 수준이 변화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규명해 보는 것도 흥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보고된 두 연구에서는 성격 변화나 인상 변화와 같은 대인 지각의 문제만을 다루었으나 앞으로 도시의 외관 변화와 같은 물리적 변화의 지각에도 동일하게 시간 틀의 효과가 적용되는지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반복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비교 문화 연구들은 개인주의(individualism)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집합주의(collectivism) 문화권의 구성원들보다 내적 일관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었다(Kashima, Siegel, Tanaka, & Kashima, 1992; Markus & Kitayama, 1991). 이러한 결과로부터,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와 안정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집합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그것이가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자신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 내적 신념과 욕구에 의해 동기화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도 여러 상황과 시간에 걸친 안정성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시간에 따른 개인의 변화보다는 안정성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행위자의 신념과 욕구 뿐 아니라 상황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집합주의 문화권 사람들은(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사람들이 상황적 요구에 맞추어 달리 행동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주장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서는 ‘변화 이론’이 ‘안정성 이론’보다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시간에 걸친 안정성에 대한 신념을, 집합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시간에 걸친 변화에 대한 신념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그렇다면 본 연구 결과 밝혀진 시간 틀에 따른 변화 지각의 비대칭성이 서구 문화권 구성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문화차가 대인 지각 및 물체 지각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⁵⁾

참 고 문 헌

- Buehler, R., & Ross, M. (1993). How do individuals remember their past stat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538-551.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 Conway, M., & Ross, M. (1984). Getting what you want by revising what you h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38-748.
- Dawes, R. M. (1969). "Interaction effects" in the presence of asymmetrical transfer. *Psychological Bulletin*, 71, 55-57.
- Dawes, R. M. (1993). Prediction of the future versus an understanding of the past: A basic asymmetry.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06, 1-24.

5) 문화차에 대한 위의 가능성을 제기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 위원에게 감사표시를 표한다.

- Fischhoff, B. (1975). Hindsight ≠ foresight: The effect of outcome knowledge on judgment under uncertaint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1, 288-299.
- Fischhoff, B. (1977). Perceived informativeness of fac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3, 349-358.
- Fischhoff, B., & Beyth, R. (1975). "I knew it would happen" Remembered probabilities of once-future thing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3, 1-16.
- Gati, I., & Tversky, A. (1984). Weighting common and distinctive features in perceptual and conceptual judgments. *Cognitive Psychology*, 16, 341-370.
- Gidron, D., Koehler, D. J., & Tversky, A. (1993). Implicit quantification of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594-604.
- Hawkins, S. A., & Hastie, R. (1990). Hindsight: Biased judgments of past events after the outcomes are known. *Psychological Bulletin*, 107, 311-327.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Kashima, Y., Siegel, M., Tanaka, K., & Kashima, E. S. (1992). Do people believe behaviors are consistent with attitudes? Towards a cultural psychology of attribution process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111-124.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Farland, C., Ross, M., DeCourville, N. (1989). Women's theories of menstruation and biases in recall of menstru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522-531.
- McFarland, C., Ross, M., & Giltrow, M. (1992). Biased recollections in older adults: The role of implicit theories of ag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37-850.
- Nisbett, R. E.,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oss, L. (1977). The false consensus effect: An egocentric bias in social percep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279-301.
- Ross, L., & Nisbett, R. E. (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Ross, M. (1989). Relation of implicit theories to the construction of personal histories. *Psychological Review*, 96, 341-357.
- Ross, M., & Newby-Clark, I. R. (1998). Construing the past and future. *Social Cognition*, 16, 133-150.
- Rothbart, M., & Park, B. (1986). On the confirmability and disconfirmability of trait concep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31-142.
- Rothbaum, F. (1983). Aging and age stereotypes. *Social Cognition*, 2, 171-184.
- Schkade, D. A., & Kilbourne, L. M. (1991). Expectation-outcome consistency and hindsight bia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9, 105-123.
- Slovic, P., & Fischhoff, B. (1977). On the psychology of experimental surpris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3, 544-551.
- Tversky, A. (1977). Features of similarity. *Psychological Review*, 84, 327-352.
- Wasserman, D., Lempert, R. O., & Hastie, R. (1991). Hindsight and caus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30-35.
- Woodruff, D. S., & Birren, J. E. (1972). Age Changes and cohort differences in persona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6, 252-259.

Prediction of the Future Versus Understanding of the Past: The Effect of Time Frame on Perceptions of Change

Hyekyung Park and Incheol Choi

The present study tested the hypothesis that perceptions of change over time w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ime frame. More specifically, it was predicted and confirmed that people would perceive more change in personality (Study 1) and physical appearance (Study 2) when the change was presented in retrospective frame than in prospective frame. In both studies, the probability that the past would be like the presen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obability that the future would be like the present.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